

한국전력, 유망 전력벤처 지원 강화

한국전력이 전력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한전은 올해 전력분야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 228억원을 지원하며 유망 전력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한전은 오는 6월 20일까지 '유망 전력벤처기업'을 선정하고 10억원 미만까지 총연구비의 75%를 지원한다.

유망 전력벤처기업이 총연구비의 75%를 한전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종전 연구비 상한선은 5억원 미만이었다.

한전은 또 유망 전력벤처기업으로 뽑힌 업체에

게는 한전이 지원하지 않는 해외 박람회 관람의 비용 일부도 지원하는 한편 100PPM 품질혁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전은 '98년도부터 매년 유망 전력벤처기업을 선정, 신기술 신제품 연구개발비 지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기술지도 시험설비 활용등 특별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한전은 지금까지 1,738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 기술자생력 배양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한전의 기술과 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제품품목은 216개에 달한다.

한전, 남북한 전력협력 대비 전력협력팀 신설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의 우선 협력대상에 전력 부문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에서도 전력 부문의 남북 협력이 상대적으로 쉽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아래 전력산업 부문의 남북 협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남북한 전력협력을 제기해 왔다.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북협력 차원에서의 전력산업 협력은 상당한 비중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여건상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전력협력을 제기해 왔다고는 하나 북한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접근보다는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한 상호 협력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부문의 대북 협력사업은 특히, 연료공급과 전력계통 연결,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 보수와 건설 등의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 역시 남북전력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 사

업단 산하에 '전력협력준비팀'을 신설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남북한 전력협력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전력협력팀은 남북한 전력협력의 기본계획과 계통 연계방안을 검토하는 등 한전의 남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전은 향후 남북협력이 활발해질 경우, 전력협력팀을 대폭적으로 확대 개편해 이에 대비할 계획이다.

일렉트리아닷컴 · 한전 KDN, 전자상거래 관련업무 제휴

일렉트리아닷컴(www.electria.com 대표: 김철주)은 한전 KDN(대표: 정연동)과 전기전력 산업 분야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두 회사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는 각자 운영하되 시스템 개발이나 시장개척 등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일렉트리아닷컴은 전기전력분야와 관련,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실시하고 실무정보, 학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사이트다. 일렉트리아닷컴의 전자상거래는 독자개발한 전자입찰 시스템과 전자적격심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 KDN은 인터넷으로 기

업과 기관, 일반인에게 각종 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분야 전자상거래 관련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두 회사는 이번 제휴로 전기전력분야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전자입찰 솔루션, 관련 콘텐츠 등을 서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마케팅과 시장개척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렉트리아닷컴은 "한전 KDN과 업무제휴로 국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코리아케이블, 전선분야 B2B서비스 실시

전선 및 관련 부속품, 전선제조설비 등을 자유경쟁입찰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B2B)가 개설돼 앞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이용 편의가 크게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케이블(대표: 이창선)은 전선분야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http://www.koreacable.co.kr>)를 개설,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코리아케이블은 이 분야에 20년간의 장기간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로 지난 '98년 9월에 설립해 그동안 전선분야의 각종 정보를 제공해 왔다.

‘코리아케이블’ 쇼핑몰은 전선, 케이블, 부속품, 제조설비 등 전선분야라면 어느 것이든 사고 팔 수 있고, 새 제품뿐만 아니라 재고품, 중고품 등도 취급하고 있다.

또한 품명, 규격, 적용사양 등 제품정보만 제시해 주면 거래업체 선정부터 계약체결 일체를 대행해 수요자의 구매활동 및 판매자의 영업활동이 필요없게 돼, 결국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 이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코리아케이블은 이를 위해 판매자인 전선 및 관련제조업체 200여개와 구매자인 각종 공사업체, 건설업체, 일반제조업체 등 수백여개 업체와 연락망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

특히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래안전장치도 마련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판매자에게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무료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쇼핑유형도 제품구매, 공동구매, 세일판매 등 4종류로 소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보다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와 (장기)재고품이나 확판제품에 대한 세일판매도 겸하고 있다.

이창선 사장은 “지금까지 단순한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탈피해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전선분야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더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선통신 내년 상용화

전화나 통신전용선이 아닌 전기선으로 인터넷통신이 가능한 전력선통신 시스템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상용화 된다.

이 시스템 개발사인 기인텔레콤(대표 : 이기원)은 최근 하나로통신과 전력선통신 상용화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 10월 상용화를 위한 시범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로통신은 기인텔레콤이 개발한 2Mbps급 전력선통신 모뎀을 자사가 보유한 초고속 인터넷망과 연동해 일반인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력선통신은 전력선 모뎀을 PC나 설비에 설치해 전력콘센트에 꽂아 사용, 전화나 통신전용선을

통한 통신기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신기술로 음성데이터 인터넷 등을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다.

산자부는 현재 2Mbps에 머물고 있는 모뎀 속도를 2004년까지 10Mbps로 끌어 올리기 위해 지난 1월 한전과 전기연구소 서울대 등 산학연 공동 연구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한편, 전력선 통신 관련 세계 최고 기술보유사로 알려진 기인텔레콤은 지난 2월 하노버 국제전시회에 출품, 원거리시범을 실시해 세계 전력 및 통신 업계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각국으로부터 기술제휴 및 구매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몰드변압기 가격 안정세

기업들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몰드변압기의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의 확보를 위해 저가정책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쳤던 ABB와 이에 맞대응으로 나선 기존 업체인 효성과 LG산전의 시장쟁탈전으로 상상 이상의 저가격대를 형성했던 몰드변압기의 가격이 최근 점차 상향 조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격적인 시장공략을 펼쳤던 ABB가 지금까지의 영업형태를 자제하고, 최근들

어 현실적인 가격대에 접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B는 앞으로도 몰드변압기의 가격을 시장 여건을 살피가면서 어느정도 더 상향조정 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지나치게 달구어졌던 업체간의 경쟁은 조만간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ABB 몰드변압기의 가격은 최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올해 초에 비해 약 15% 정도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전기, 대일무역 역조 심각

중전기 정밀기계 수입 등 자본재 수입이 늘면서 대일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1/4분기중 일본과의 교역에서 수입액은 77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1% 늘었으나 수출은 48억5000만달러로 50.3% 증가하는데 그쳐 28억6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올해 1/4분기중 일본 수입품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반기계 114.1% ▲정밀기계 114.0% ▲수송기계 54.8% ▲반도체 51.2% ▲중전기 47.9% ▲전자부품 40.6% 등 자본재 수입이 급증했으며 소비자재 중에선 승용차와 가정용 전자제품이 각각 185.5%와 113.4%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 수입선 다변화 해제이후 대일 무역역조가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4분기의 대일 무역적자 17억달러에 비해 10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규모로 이같은 추세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올 연간 대일 무역적자액은 1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 '96년 157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97년 131억달러, '98년 46억달러 등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는 83억달러로 확대됐다.

한편 4월중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으로 수출이 136억4천1백만달러, 수입이 134억1천6백만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전기협회, '한국전기사업변천사' 발행

한국 전력사를 재조명하는 사서가 발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전기협회(회장 : 최수병)는 한국 전력사업의 초창기부터 전력 3사 통합까지의 전력사업 초·중기사 과정을 주요 사료의 다각적인 발굴 등으로 새로운 전력사를 정립한 '한국전기사업변천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사업변천사'는 1898년 한성전기의 설립, 1907년 일한가스전기의 한반도 진출과 전력 3사 통합, 그리고 한국전력(주) 탄생까지의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1930년대 북한 수계대전원개발과 태평양전쟁 수행에 따른 병참기지화 정책의 영향 ▲미군정 이후사와 6.25 전재 복구에 따른 재건과정 및 북한 전력사업 실태 ▲서선전기의 실체 ▲구삼사통합작업의 사실(자유당 시대를 거쳐 민주당 정부가 본격 추진한 과정) 등 지금까지 미흡하거

나 누락된 내용을 보완, 구체적으로 조명했다고 대한전기협회는 밝혔다.

더불어 다양한 참고문헌이나 전기계 원로의 증언 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의 사료 발굴 작업을 병행하는 등 미흡한 사료 보완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기협회는 이번 사서 발간을 계기로 "빈약한 전력문화기반에 보완재 역할을 해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전력문화 계승의 매체로서 그리고 전력계 전통을 재조명하는 소장본으로 깊이 간직되고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기사업변천사'는 비매품으로 정부 부처와 한전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 대학 도서관, 관련 연구기관 및 전기관련 업체와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문의 : 대한전기협회 홍보처 2274-1663〉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